

제주에만 있는 멸종위기 식물 죽절초·비자란·석곡 자생지 복원

news1.kr/articles/5091015

2023년 6월 28일

홈 > 전국 > 제주



본소식 - 뉴스1제주 >>

제주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오는 29일 죽절초 600본, 석곡 100본, 비자란 100본을 서귀포시 서홍동시험림에 식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비자란, 죽절초, 석곡.(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뉴스1

제주 세계유산본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죽절초와 석곡, 비자란의 자생지를 복원한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오는 29일 죽절초 600본, 석곡 100본, 비자란 100본을 서귀포시 서홍동시험림에 식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수목원 개장 30주년 특별기획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00본의 복원식물은 2015년 서귀포지역 자생지에서 채집된 종자증식과 조직배양을 통해 한라수목원에서 증식한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상록활엽수림 하층의 지형을 고려해 자연번식이 용이하고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군락으로 식재하거나 노거수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비자란은 멸종위기 1급 식물이며, 죽절초와 석곡은 2급이다.

죽절초는 국내에서 제주에만 자라는데 서귀포지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혹은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자란은 계곡에 있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개체수가 매우 적다.

이들 식물은 하천의 토양유실이나 자생지 환경변화에 의해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체계적인 증식과 복원으로 제주지역 식물종다양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공적인 증복원이 되도록 복원 후에는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수목원은 2000년 5월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식물의 증식과 보전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만년콩 등 29종 4065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와 식물조직배양법으로 증식을 진행하고 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핫 포토

나란히 손 잡은 한미일 국방장관



황희찬 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위해 출국



현충일 앞두고, 고사리손 헌화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오물 풍선 600여개 날려보낸 북한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논의

총파업 논의하는 의협

